

한우협회 · 롯데리아,  
‘500 얼음뽕’ 이벤트 열어  
결식아동 기부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진행하는 한우나눔 행사가 롯데리아와 만나 새로운 매칭기부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롯데리아(대표 노일식)와 연계해 지난 8월 15~16일 양일간 한국민속촌에서 한우나눔행사의 일환으로 ‘500 얼음뽕’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500 얼음뽕’ 이벤트에 참가한 1인당 3개의 한우버거를 결식아동들에게 기부하는 매칭기부형식으로 진행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대다수가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나서 참가자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결식아동에게는 한우버거를 기부하여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밖에도 ‘조선 최고의 맛집’을 컨셉으로 부스를 설치해 페이스페인팅, 한우버거 쿠폰 증정, 나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벤트의 일환으로 몸짱 한우와 사진을 함께 찍어 SNS에 올린 참가자와 한우로데오 게임에서 성공한 참가자, 중앙무대에서 노래를 불러 미션에 성공한 참가자에게 한우버거 쿠폰을 증정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한국민속촌에서 한민족과 함께해 온 한우를 홍보해 뜻깊었다”며 결식아동을 돕는데 참여해주시는 참가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8. 17]

한돈자조금,  
한돈데이 시구행사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8월 2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한돈데이 시구행사와 함께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야외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기에 앞서 이병규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의 시구와 한도니 캐릭터의 시타를 통해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성공적인 경기 시작을 기원했으며, 경기 시작 후 전광판 OX 퀴즈, 행운번호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한돈 선물세트를 증정했다.

또한 육천 노인장애인복지관 관계자, 한돈 농가 약 100명을 경기관람에 초청해 함께 한돈 도시락을 나누고 경기를 응원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 외에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찾은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한돈 무빙레스토랑 시식행사, 페이스페인팅 이벤트, 한돈 다트게임 등의 야외 이벤트

를 진행하며 활기찬 경기 분위기를 유도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데이 시구행사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잠실야구장과 SK 와이번스 문학경기장,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청주종합운동장 야구장에 한돈 스포츠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야구 외에도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관람권 증정 이벤트 및 무빙레스토랑 시식 행사 등을 통해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식으로서 한돈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병규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번 시구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즐겁고 건강한 이미지의 한돈을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돈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김세정 기자 [2015. 08. 03]

**낙농육우협회 · 스타벅스,  
소외계층에 ‘K-MILK 사랑의  
우유보내기’ 기금 1억원 전달**



(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주)스

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이석구)와 함께 7월 31일(금) 스타벅스 시청 플러스 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 ‘K-MILK 사랑의 우유보내기’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2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개한 스타벅스의 국산우유 소비촉진 캠페인인 ‘우유사랑라떼’ 캠페인 음료 1잔 판매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된 금액이다. 해당 기금은 8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계층에 우유를 전달하는 ‘K-MILK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타벅스의 ‘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마다 카페라떼 톨 사이즈(355ml)를 ‘우유사랑라떼’로 정해 3,900원(현재 판매가 4,600원)에 제공한 행사로 분유 재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산우유 소비촉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취지로 마련되었다.

2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은 총 21회 동안 약 43만 리터의 우유 사용으로 카페라떼의 일평균 판매량 대비 150%가 넘는 성과를 기록하며 국산우유 소비 촉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석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 정구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석구 대표이사는 “스타벅스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사회적임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으로

의 국산우유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낙농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스타벅스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낙농가를 대표해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8. 03]

## 9월 4~5일 ‘2015 전국양계인대회’ 열린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오는 9월 4~5일 1박 2일간 전북 김제시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2015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FTA 협상 등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연초까지 발생한 AI로 양계인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가운데 양계산업의 생존·발전·번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양계인의 화합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2015 전국양계인대회’는 1,500명 규모로 개최되는 가장 큰 양계인들의 축제로 ‘하나 된 양계인!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양계인들의 생존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전국양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방화시대에 따른 양계인의 자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 양계농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호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과 화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8. 19]

## 토종닭협회, 양계사진 공모전 개최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는 8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주간 제5회 양계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친근한 양계사진을 일반인에게 소개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3저1고(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건강식품인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는 닭과 관련된 생활 속 다양하고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표현한 사진, 아름다운 농장과 닭,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닭고기 요리 및 시식 모습, 기타 닭 관련 사진 등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토종닭협회 홈페이지(<http://www.knca.kr>)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수상작은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5일 발표되며 우승작 100만 원을 비롯해 총 640만 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5. 08. 12]

세계양봉대회 'Bee! Bee!  
축제' 대전시, 막바지 점검  
9월 15~20일 134개국 1만여 명  
외국인 참가 예정

11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44회 세계 양봉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국가로 한국이 유치한 가운데 9월 15~20일 6일 동안 대전에서 개최돼 세계 134개국 1만 여명의 양봉 농업인들이 참가한다.

8월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통 있는 국제대회로서 그동안 양봉협회를 주축으로 한 조직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공적인 대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준비 등 대회 한 달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1년 아르헨티나 대회 때 한국 유치가 어렵게 성사된 국제행사로서 대전시는 DCC(대전컨벤션센터)와 대전무역전시관 등에서 진행되는 총회, 학술대회, 테크니컬 투어 등 본 대회를 비롯, 10만여 명의 시민과 전국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Bee! Bee!축제'를 병행해 엑스포광장과 한빛탑주변에서 대규모 행사로 추진한다.

세계양봉대회는 7월말 현재 126개국의 양봉 전문가 1,700여 명이 참가신청을 마쳤으며 34개국에서 136개 업체가 242개 부스에 다양한 양봉 기술과 제품 등을 전시한다.

특히 대전시는 'Bee! Bee!축제' 병행을 통해 양봉체험, 농업관련 전시 및 판매, 각종 농업 체험행사 홍보 등 대전을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시는 교통안내, 급

수봉사 등 100여 명의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행사장은 물론,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계로 보건 의료는 물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현장배치 등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계 양봉농가들이 방문하는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대전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행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양봉 가구 수는 1만9,903가구(호)로 사육군 수(군)는 175만7,000여 군에 달한다. 이중 대전시는 265가구 3만6,682 군으로 가구수 대비 1.3%, 사육군 수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양봉대회는 양봉관련 과학, 기술, 환경, 경제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1895년 설립됐으며 사무국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세계 82개국 107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897년 첫 벨기에 대회이후 아시아에서는 일본(1985), 중국(1993)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 대회를 유치했다.

뉴스(대전) 연제민 기자 [2015. 08. 14]

##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출범

식품의 안전성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금,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정립을 위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축산식품 안전위생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 소비자를 비롯한 산·학·관·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선진화된 대한민국 축산업 및 축산식품 산업의 도약을 위해 지난 8월 13일 사단법인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축산물 및 축산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위해 출범한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를 직접 찾아가봤다.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of the 가장 큰 목적은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위생,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데 있다.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는 이를 위해 축산식품 가공업체 및 판매업체 등 현장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및 관리방법 및 성공사례발표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 수준을 제대로 알려겠다는 복안이다.

소비자와 축산단체의 소통의 장도 마련된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해 신뢰를 구축하고 축산물 안전 위생 관련 인식개선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광선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활한 소통과 역할 분담을 위해 내부 기구를 구

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R&D 연구사업이나 각종 축산식품 전시 및 홍보행사를 개최해 축산식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는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시장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축산·식품 관련업체 및 종사자 회의를 개최해 축산물 품질관리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세부계획을 설정하고 시장개척사업에 대한 역할을 모색키로 했다.

### 〈특별인터뷰〉

#### 이창호

####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장

“그동안 축산업 종사자로서, 한국오리협회장과 축산단체협의회장을 지내오면서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커져가는 현실을 보며 축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이창호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장은 축산분야도 앞으로 연구개발·마케팅·서비스 등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이뤄지는 동시에 관련업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6차 산업으로 승화시키는 것만이 시장개방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업의 6차산업화는 강한 선진축산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축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범국민적 안전 위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축



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한 축종의 생산자단체장에서 축산단체를 아우르는 축단협회장을 거쳐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장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이창호 회장.  
이 회장은 “축산업의 미래에는 축산식품의 안

전성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첫 삽을 떴다”며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축산업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피력했다.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2015. 08. 17]



오리부추무침